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대인문제해결 사고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Problem Solving Interaction with Puppetry on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김 현 경*
Kim, Hyun 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blem solving interaction through puppetry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thinking. The subjects were 60 children, ranging in age from 69 to 72 months. All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experimental groups: the control group with no treatment, the puppetry group, the puppetry problem solving interaction group. The treatment covered 4 weeks. The instrument was based on Shure and Spivack's(1974) Preschool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IPS) tes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aired t-test, one-way ANOVA, Tukey test, percentage, and Kendall's τ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 frequency of solving interpersonal problems. The problem solving interaction with puppetry group was the most effective on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trategies.

These results showed that problem solving interaction with puppetry is effective in cultivating young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thinking.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의 인지에 대한 연구는 수년 동안 연구자와 교육자들에게 관심을 일으킨 분야였다. 그러나 Piaget를 중심으로 하였던 그동안의 인지에 대한 연구는 물리적 과제에서 나타나는 대물사고에 집중하였던 반면, 최근 인지

분야의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두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인지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지와 다른 능력일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시도해 오고 있다(Damon, 1977; Lovinger, 1976; Selman, 1976).

대인문제해결사고능력(Interpersonal Cogniti-

* 광주보건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강사

ve Problem Solving Skill)에 대한 이론은 이러한 사회적 인지이론의 연구에서 발전해왔다. Krasnor와 Rubin(1981)은 대인문제해결을 '사회적 목표를 선정하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행동적 해결방안들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사고, 정서, 의도를 이해하는 조망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효과적인 대인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은 다양하게 창출될수록 성공적일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도, 아동의 학교 부적응, 친구관계, 정서장애 등의 문제가 대인문제해결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Mize & Ladd, 1988; Rubin & Daniel Beirness, 1983; Zartman, 1982). 또한, 동료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해가는 기술이 유아의 학교 적응 및 성인기 사회적응의 예언적 효과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찬옥, 1989; Cowen, Ped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

이에 따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Spivack & Shure, 1974) 효율적인 대인문제 해결사고 학습방법도 고려되어 왔다. 일례로 Himes(1979)는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극놀이(Sociodramatic Play)의 효과를 입증하였고, 다른 연구들 (Connolly & Doyle, 1984; McClure, 1978; Selman, 1971)도 사회극놀이를 통해 타인의 관점과 생각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mith(1979)는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형극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는 인형극을 통한 교사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 대안적인 해결사고, 결과적사고, 원인적 사고와 같은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학습방법이 높이라는 점에서 사회극놀이나 인형극을 통한 학습은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사회극놀이가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점이 있는 반면, 인형극은 인간의 갈등을 인형에 투사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엄기영, 199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찬옥(1986)은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발달적 연구를 하였으며, 대인문제해결능력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 연구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현숙(1986)은 어머니-유아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이상선(1990)은 어머니의 언어형태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해 보고자 했다. 이경희, 최경순(1992)의 경우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아동의 인지양식과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를 발달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있다 (정윤주, 1993). 노영희(1990)는 유치원 교사의 교수전략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교사의 비지시적 언어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현경(1990)은 대인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인형극의 가능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Smith(1979)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을 고안하였다. 뒤이어 김인숙, 한애향(1992)은 인형극을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김현경(1990)이 실시한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의 효과에는 교수매체로서 인형극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형극 자체가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증진시키는 학습방법인지,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가 효과적인 대인문제해결사고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현경(1990)이 실시한 학습방법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로서 실험집단을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없는 인형극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 수준을 두 가지 측면, 즉 대인문제에 관련된 해결 방안의 수와 그 방안의 반응범주로 측정하고자 하며, 특히 대안적 해결사고에 있어서 긍정적·부정적 반응범주가 실험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둘째, 동일한 대인문제상황에서 대인대상을 대(對)친구와 대(對)성인문제로 나눌때, 유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실험집단간 대인문제해결능력을 알아보려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없는 인형극집단, 그리고 통제집단간에 대인문제 해결방안의 양적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없는 인형극집단, 그리고 통제집단간에 대인문제 해결방안의 반응범주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Asher, Renshaw & Hymel, 1982). 이제까지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들은 인지기술에 대한 측정과 퍼즐, 글자 수수께끼, 지적 창의성 과업과 같은 비사회적 과업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Himes, 1979).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지적인 면에서보다는 사회적인 면에서의 무능력이 학업실패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을 낳고 나아가서는 성인기 사회부적응의 원인이 됨을 밝혔다(Cowen, Ped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 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Kohn & Rosman, 1972). Selman과 Demorest(1984)는 비인기

아동들이 보이는 비효율적 해결방안들이 사회 인지적 유능성 즉 대인인지능력이 낮거나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Jahoda(1953)는 문제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해결 기술과 방안들을 선택하여 적용하므로써 효과적인 대인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Pellegrini, 1985). 그렇다면 대인문제해결능력이란 무엇인가? 대인문제해결(Interpersonal Problem Solving)이란 문제상황을 다루기 위해 여러가지 가능한 효과적 반응대안을 이용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대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반응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행동 과정이다(D'Zurilla & Goldfried, 1971). 이와같이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들을 중심으로 유아가 해결 가능한 방안들을 스스로 모색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여 문제해결의 결과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훈련방법을 활성화한다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박찬옥, 1989. 7; Himes, 1979; Rosen, 1974; Saltz & Johnson, 1974). 유아가 대인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70년대 중반 사회인지 발달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으로서의 대인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연구한 대표적 학자는 Spivack이다. Spivack은 그의 이론 모형에서 이를 대인문제해결사고(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라 불렀고 '사회적 적응이 대인문제 해결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Spivack과 Shure, 1974)고 가정하였다. 말하자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가 사회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응 과정인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법은 먼저 문제상황을 다루는 다양한 반응대안을 산출하고 이들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응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Himes(1979)는 이러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문제상황, 문제형성, 대안산출, 의사결정, 검증의 5단계로 설명하였다.

또한, Spivack과 그의 동료들은 대인문제해결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적인 대인문제해결기술(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을 제시하였다. 1)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갖는지 알고 이해한다; 2)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발견한다; 3)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파악한다; 4) 행동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결과를 고려한다; 5) 자신이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요소를 배경으로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논의되고 있는 하위사고는 다음과 같다.

(1) 대인문제에 대한 인식(sensitivity)

대인문제를 인식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문제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민감성(sensitivity)이다. 존재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유아는 이러한 민감성을 갖지 않은 유아와 다른 방식으로 대인적 상황에 접근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2) 대안적 해결사고(alternative solution thought)

하나의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첫번째 시도가 실패하면 다른 해결방안을

산출한다.

(3) 결과 예측사고(consequential thought)

수행한 대안적 행동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결과들을 예측하는 능력이다. 이와같이 결과에 예측사고를 할 경우 수행한 대안적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므로 유아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원인적사고(causal thought)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동기나 원인을 통찰하는 능력이다. 행위를 예견한다는 관점에서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관련짓는 것이다.

(5) 수단-목적사고(means-ends thought)

주어진 대안적 목표에 수단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며 장애를 예상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도달하는 능력이다.

Spivack(1979)은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사고양식을 포함한 아동의 실생활 문제를 가설적 이야기로 구성하여 ICPS test를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네 가지 하위사고 중 특히 대안적 해결사고에 대하여, 유아가 대안적 해결사고 검사에 반응한 해결방안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른 사회적 적응 변인들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찬옥(1986)이 Spivack의 ICPS test를 토대로 하여 「대인문제해결사고검사」를 제작하였다.

2. 학습방법으로서의 인형극 놀이

1) 인형극의 효과

인형극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로 유아들에게 매력적인 매체이다. 안정의(1985)는 인형극이란 극화활동의 한 형태로 무대에 사람

이 아닌 인형이 나와 연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과 개성을 가진 배우를 구성인자로 하지 않고 허상적 무생명체인 인형을 구성인자로 하기 때문에 일반연극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극적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존속가치 또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아는 인형에 매혹되어 인형들에 생명을 부여하고 인형의 외견상의 매력을 쉽게 받아들인다(엄기영, 1990). 이처럼 인형 자체가 환상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인형극은 유아로 하여금 상상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는 물론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증진시키도록 한다(Smith, 1979).

이같은 표현의 상징화 및 인간과 인간이 갖는 갈등을 대변하는 매체로써 인형극은 무엇보다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엄기영(1990)은 자기가 해 보고 싶은 동작이나 대사를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형 사용이 유아들에게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자발적인 대화를 하게 한다는 Petty와 Jensen(1980)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유아는 언어사용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형이라는 대리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투사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인형극 속의 인형의 정서에 감정이입(empathy)하게 되므로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의 기본인 조망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조작기 유아의 물활론적 사

고는 유아가 인형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한 요인이다. 그러나 인형극의 인형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고 하나의 놀랄만한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혼 또는 혼과 같은 것을 갖고 있다.

따라서 Smith(1979)는 유아가 비형식적이고 간단한 인형극에 대해 나타내는 열정을 볼 때 인형극을 사용하는 것이 유아에게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동기화시키고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

인형극은 교사가 유아의 학습을 돕는데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인형을 사용할 수 있다. Smith(1979)는 문제해결기술을 발달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기〉

(1) 문제에 대한 인식(sensitivity to problems)

인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호작용적 접근은 유아로 하여금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강력한 기법이다. 인형극은 유아와 관련된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묘사하므로써 개인적·상호작용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

(2) 대안적 해결사고(alternative-solution thinking)

다른 대인문제 해결기술(Spivack, Platt & Shure, 1976)은 대안적인 해결 사고이다. 이러한 기술은 특별한 대인문제에 대한 가능한 많은 해결책들을 생각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

어 만약 유아가 장난감을 다른 유아에게 빼앗긴다면 얼마나 많은 해결책을 유아는 생각할 수 있을까? 다시 움켜잡을까? 그 사람을 위협할까? 장난감을 달라고 부탁할까? 선생님께 말할까? 울까? 많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3) 결과적 사고(consequential thinking)

세번째 문제해결 기술은 대인 행동을 수행할 때 일어날 것을 인식하는 능력인 결과적 사고이다.

인형극에서는 유아들이 제안한 해결책들 중 어떤 것을 인형들이 시도해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유아들과 교사(facilitator)는 결과를 주목할 수 있다.

(4) 정서적 결과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emotional consequences)

정서적 결과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해결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교사(facilitator)와 인형들과 함께 이야기하므로써, 인형의 정서에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될 수 있다.

(5) 원인적 사고를 발달시키기(developing causal thinking)

마지막으로 인형과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원인적 사고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관련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원인적 사고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기술한 장난감을 빼앗긴 유아는 빼앗은 유아를 갖고 놀만한 재미있는 것이 없거나 복수하려고 장난감을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

난감을 빼앗아간 유아는 자기의 폭력이 장난감을 빼앗긴 유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난감을 빼앗긴 유아가 그 장난감을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했을 경우, 교사가 그 동기를 묻는다면, “내 것을 가져갔어요. 내가 처음에 놓고 있었어요!”라고 반응할 것이다.

대인 행동들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인문제를 피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물론, 유아들은 원인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맞추는 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유아가 타인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가능한 동기들을 심사숙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 서구에 소재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5, 6세 유아 60명이다. 실험집단 I, II(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와 통제집단을 동질화 하기 위하여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대한 사전검사의 점수를 근거로 집단을 나누었다.

각 실험 집단별 유아의 평균 연령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 대상 유아의 연령은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 연령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실험을 시행하기 이전에 각 집단별 대상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표 1> 실험집단별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 및 표준편차 (연령:개월)

집 단	사례수(남, 여)	평균연령	표준편차
인형극을통한문제 해결상호작용집단	20(10,10)	70.5	3.69
인형극집단	20(10,10)	71.9	3.26
통제집단	20(10,10)	69.4	2.73

F(2,57)=2.81, P>.05

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의 결과를 변량분석하였다. 사전검사에서는 대인문제해결사고 점수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2,57)=0.61, P>.05). 따라서 실험처치 전의 각 집단별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각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연구 도구

대인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유아가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ivack(1976)의 ICPS(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을 토대로 박찬옥(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네 가지 하위 사고, 즉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 예측사후,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사고를 각각 별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모두 수단-목적 사고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는 수단-목적 사고검사가 유아들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안적 해결사고에 대하여, 유아가 대안적 해결사고 검상 반응한 해결방안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로 범주화하

고 있으며 이를 다시 각각 0수준에서 3수준까지 구분하고 있다(부록 2참조).

각 하위검사의 문제상황은 상대가 친구일 때, 어머니일 때, 교사일 때의 세 가지 경우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문제 상황에서 그 대상을 대(對)친구와 대(對)성인문제로 구분하여 친구관계를 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3개의 대상문제 이야기 중 친구문제만 검사하였다.

채점은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생이 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91, 채점자내 신뢰도는 .93이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각 집단에 실시할 교수학습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시 동구 J유치원에서 각 집단별로 10명씩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에 따른 인형극과 교사 제시 인형극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대상 유아들은 두 상황 모두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2) 사전 검사

사전검사는 교사의 협조하에 일과시간 동안 유치원 관찰실과 시청각실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 학생 4명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자들은 검사실시 이전에 검사문항들의 문제 스토리를 개념화하였으며, 시도방법, 발문법, 주의점 등을 질의응답식으로 교환하였다.

3) 실험처치

실험집단에는 1992년 10월 28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1주에 2회씩 5주간에 걸쳐 모두 10회의 실험처치를 하였다. 1회당 처치시간은 실험집단 I(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의 경우 20-25분 정도, 실험집단 II(인형극 집단)의 경우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주로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생의 보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시나리오는 효과적인 인형극 진행을 위해 대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실험처치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다. 교사(facilitator)는 유아와 친숙한 담임교사가 맡았고, 교사(facilitator) 훈련은 본 연구자가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에 따라 유아가 인형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facilitator)의 역할과 그 방법에 대해 사전지도가 이루어졌다.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실험집단 I)에는 Smith(1979)의 방법을 기초로 김현경(1991)이 만든 10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부록 3참조).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대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인지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나리오 구성은 3막으로 되어 있으며 1막은 문제 제기→ 2막은 문제 고조→ 3막은 문제 해결의 순서로 진행되고 2막과 3막의 중간 과정에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김현경, 1990). 문제해결 상호작용은 문제에 대한 인식,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적 사고, 정서적 결과에 대한 인식, 원인적 사고 등을 통해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킨다(부록 4참조).

인형극 집단(실험집단Ⅱ)에는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나 유아, 인형, 교사(facilitator) 간에 문제해결 상호작용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교사가 만들어 보여주는 인형극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실험적 처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4)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아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 학생 4명에 의해 유치원 관찰실과 시청각실에서 일과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제시된 문제상황에 대하여 각 아동이 반응한 내용을 기록용지에 기록한 후, 각 반응을 기준에 따라 범주를 정하고 점수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집단별 대인문제해결 방안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짝진 표본에 대한 t검정, 일원변량분석, 사후비교로 Tukey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대안적 해결사고 반응범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백분율을 구하고 Kendall의 τ 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와 $P < .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집단별 대인문제 해결 방안수 차이

1)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

인형극에서 교사(facilitator), 유아, 인형 간

의 문제해결 상호작용 유무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별 해결 방안수의 사전 사후 검사 비교

집 단	검사	평균	표준편차	t
인형극을통한문제	사전검사	2.55	1.0600	-7.3616**
해결상호작용집단	사후검사	6.30	2.0026	
인형극집단	사전검사	2.85	0.8300	-3.4314**
	사후검사	4.60	2.9271	
통제집단	사전검사	2.50	0.8300	-.2525
	사후검사	2.55	1.0500	

** $P < .01$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 인형극 집단은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 방안수의 사전, 사후 검사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집단별 대인문제해결사고 사후 검사 비교

인형극에서 교사(facilitator), 유아, 인형 간의 문제해결 상호작용 유무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의 사후검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변량분석결과 실험집단별로 유아의 해결 방안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F(2,57) = 15.46, P < .05$).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ukey 검증을 한 결과는

〈표 3〉 집단별 해결 방안수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141.033	2	70.517	15.46*
집단내	259.950	57	4.516	
전 체	400.983	59		

*P < .05

〈표 4〉와 같다.

〈표 4〉 집단별 해결 방안수의 개별 비교

집 단	통제집단	인형극	인형극을 통한문제 집단	인형극을 통한문제 해결 상호작용 집단
통제집단		*	*	
인형극집단			*	
인형극을 통한문제				*
해결 상호작용집단				

〈표 4〉에 의하면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 인형극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인형극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은 인형극 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인형극 집단은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는 차이가 있으나 통제집단보다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대인문제해결 사고는 집단별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세 가지 하위사고별로도 마찬가지이다.

〈표 5〉 하위사고별 집단간 해결 방안수 평균의 차이

하위사고	집 단	평균(표준차이)	F
대안적	인형극을 통한 문제	3.15(1.4244)	
해결사고	해결 상호작용 집단		12.24*
	인형극집단	1.85(1.4956)	
	통제집단	1.15(0.4866)	
결과예측	인형극을 통한 문제	1.90(0.9605)	
사고	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	1.20(1.0045)	6.85*
	통제집단	0.85(0.5425)	
원인적	인형극을 통한 문제	1.25(0.7847)	
사고	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	1.55(1.1480)	6.88*
	통제집단	0.55(0.4920)	

*p < .05

2. 대안적 해결사고의 반응범주 결과 분석

대안적 해결사고에 있어서 각 집단별로 반응된 범주들을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 대안적 해결사고 반응 범주의 빈도

반응범주	인형극을 통한 문제	인형극집단	통제집단	
	해결 상호작용 집단			
긍정적	1수준	20(31.25)	17(45.95)	4(18.18)
해결	2수준	1(1.56)	1(2.70)	0
	3수준	30(46.88)	14(37.84)	14(63.64)
부정적	0수준	6(9.38)	3(8.11)	3(13.64)
해결	1수준	3(4.69)	2(5.41)	1(4.55)
	2수준	4(6.25)	0	0
	3수준	0	0	0
계		64(100)	37(100)	22(100)

〈표 6〉에서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 통제 집단은 긍정적 해결방안의 3수준 전략을, 인형극 집단은 긍정적 해결방안의 1수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대안적 해결사고의 반응범주 빈도에 대한 순위 및 검증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 대안적 해결사고 반응범주의 순위 및 검증

반응범주		인형극을 통한 문제 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	통제 집단
긍정적 해결 방안	1수준	2	1	2
	2수준	6	5	6
	3수준	1	2	1
부정적 해결 방안	0수준	3	3	3
	1수준	5	4	4
	2수준	4	6.5	6
	3수준	7	6.5	6
r		.68	.84	.82

집단별 반응범주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과 인형극 집단의 반응 빈도 순위를 r 검정한 결과 .68로 중위상관을 보이고 있고 인형극집단과 통제집단은 .84를,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과 통제 집단은 .82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반응범주의 순위가 중위상관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처치효과가 반응범주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인형극이라는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실험적으로 알아보려는 것으로 김현경(1990)이 실시한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미치는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즉 문제해결상호작용이 없는 인형극 자체가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증진시키는 학습방법인지 또는,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가 효과적인 대인문제 해결사고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Smith(1979)의 모형을 기초로 선행연구에서 고안하여 시도한 바 있는 10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시 서구에 소재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6세 유아 60명이었다.

실험집단은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없는 인형극집단, 어떠한 실험적 처치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과 인형극집단은 둘 다 인형을 매체로 하였고 대인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은 유아의 참여와 교사의 기술 양자를 강조하여 유아와 인형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으나 인형극집단의 경우 교사가 인형극을 보여주고 유아는 수동적인 관객으로만 보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Spivack(1976)의 ICPS(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를 토대로 박찬옥(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해결사고검사」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짝진표본에 대한 t검증, 일원변량분석, Tukey 사후검증, 백분율, Kendall의 τ 검증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 간에는 대인문제 해결사고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이 인형극 집단이나 통제집단 보다 대인문제(대안적 해결사고, 결과 예측사고, 원인적 사고)를 해결하는 방안의 수가 더 많았고 인형극 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더 많았다. 마찬가지로,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집단과 인형극집단은 대인문제 해결사고검사 방안수의 사전, 사후검사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나 대인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인형극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현경, 1990)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 간에는 대안적 해결사고의 반응 범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집단, 인형극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의 대안적 해결사고 반응수준(긍정적 해결방안; 1수준:요청, 2수준:설득, 제3자 동의, 심리적 자극, 3수준:공평, 교환, 기다림, 유머, 보상/

부정적 해결방안; 0수준:신체공격, 소유물 손상, 흠치기, 빼앗기, 때쓰기, 1수준:위협, 복종, 우정철회, 일방적 공평, 권위의존, 2수준:계책, 뇌물, 3수준:거래)의 순위에 있어서 각 집단간에 중위상관 이상을 보여 반응범주의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현경, 199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긍정적 해결방안의 3수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김은희와 이영(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1수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박찬옥(1986)과 김현경(199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모형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해결 상호작용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 대인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인형극으로 제시만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긍정적 영향을 준 점은 특이할만 하다. 이는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없는 인형극 자체도 대인문제 해결사고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대인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인형극으로 제시하는 것과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일어날 경우 양적인 면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처치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여, 대인문제해결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인형극의 가능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실험상황을 세분화하여 교수매체로써

인형극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여 밝혀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가 유아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반응한 것이란 점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들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로 장기적 효과를 예언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 유지의 측면을 보는 것이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형극이 아닌 다른 교수매체(예를 들면, 그림동화)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와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은희, 이 영.(1991).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12권, 1호, 52-67.

김현숙, 안애향.(1992).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학술연구 보고서, 제3집, 한국어린이육영회.

김현경.(1990).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노영희.(1990). 유치원 교사의 교수전략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의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_____.(1989).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이론모형 검토. 유아교육연구, 제9집, 9-26,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신현숙.(1986). 어머니-유아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덕성여대학교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정의.(1985). 인형극. 한국인형극보급협회.

엄기영.(1990). 유아를 위한 인형극 소고. 김옥련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동문회.

이경희, 최경순.(1992).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3권, 2호.

정윤주.(1993). 아동의 인지양식과 대인문제해결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Asher, S. R., Renshaw, P. D.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 & C. R. Cooper (Eds.), The Young Child Review of Research, 3.

Connolly, J. A. & Doyle, A. B. (1984). Relation of social fantasy pla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No. 5, 797-804.

Cowen, E. L. &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07-126.
- Gottman, J. M.,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Himes, J. P. (1979). Sociodramatic Play as a Technique for Increasing Young Children's Generation of Potential Strategies for Solving Interpersonal Problem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Kohn, M., & Rosman, B. L. (1972). Relationship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functioning to later intellectual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6, 445-452.
- Kransnor, L. R. & Rubin, K. H. (1981). The assessment of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young children. In, T. V. Merluzzi, C. R. Glass & M. Genest (Eds.), Cognitive Assessment. The Guilford Press, New York. 을 인용한 노영희(1990)의 연구에서 재인용.
- Loevinger, J. (1976). Ego development. Washington, D. C.: Jossey Bass.
- McClure, L. F., Chinsky, J. M. & Larcen, S. W. (1978). Enhancing social problem-solving performance in an elementary school set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0, No. 4, 504-513.
- Mize, J. & Ladd, G. W. (1988).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behavior and status from their interpersonal strategies: A comparison of verbal and enactive response to hypothetical social dilemma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6, 782-788.
- Pellegrini, A. D. (1981). A sequenced questioning paradigm as a general facilitator of preschoolers associative flu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2, 649-650.
- Rubin, K. H. & Daniels-Beirness, T. (1983).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lates of sociometric status in kindergarten and grade on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29, 337-352.
- Smith, C. A. (1979). Puppetry and problem-solving skills. In L. Adams & B. Garlick (Eds.). Ideas that work with young children. Vol. 2,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Spivack, G. & Shure, M. B.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solving real-life problems.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vack, G., Platt, J. & Shure, M. (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을 인용한 박찬옥(1986) 연구에서 재인용.
- Zartman, S. E. (1982). Effects of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training

with children in private pre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